

노인 간호 실습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신 동 수**·서 순 림***·이 은 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전체인구의 9.1%로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이르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간호사들이 노인의 간호 요구에 맞추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의 배출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노인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노인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장기적인 간호를 요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볼 자가 감소하여 가족보다는 요양기관에서 직원들에게 간호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말 통계를 보면 시설 간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 충족률은 13.2%, 인력 충족은 12.6%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노인 수발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기획하며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k, 2002).

간호 교육은 지식 습득과 임상실무 교육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교육과정 동안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상 실무 교육은 성인간호학 등 7개 전공을 중심으로 주로 급성기 환자나 중환자가 중심이 된 3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이들의 건강문제를 학습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Lee et al., 2005).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구 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실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학생들이 노인 간호에 대한 질적인 실습경험을 얻은 후 간호사로서 배출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은 대부분 3차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와는 다른 환경인 노인 요양기관에서 실습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또 다른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인 간호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 간호 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Yang, Oh, Kim, & Bak, 2002; Yoon & Han, 1999) 또는 노인 간호 실습 시 사용한 간호 진단(Hu, Lim, & Kim,

* 이 논문은 2005년도 경북대학교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교신처자 E-mail: doshin@knu.ac.kr)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투고일 2006년 5월 12일 심사외리일 2006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06년 8월 9일

1998) 등 매우 제한적임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간호교육자는 증가된 노인 인구의 효과적 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어 간호학이 전문직으로 성장 할 뿐 아니라 간호학생들이 간호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Q 방법은 인간행동 연구에 대한 조사연구 방법 중의 하나로 개인의 가치나 태도 등과 같은 주관성(subjectivity)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방법론이다(Kim, 1992). 인간은 사회라는 조직체계 안에 속해 생활해 가면서 각자의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의 연구에 필연적이다.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Q-방법적 접근은 연구자의 가정 또는 조작적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개개인의 의견과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으로 인간 개개인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Stephenson, 1982). 즉, 한 개인이 경험한 내용의 개인적인 의미의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병원 실습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 학생들이 어떤 고유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상이한 관점을 갖는 학생들 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Q 방법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학생들의 실습 경험을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고찰한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

임상실습은 간호 학생들이 간호전문직 역할, 시간관리, 및 전문적인 사회화를 학습하는 중요한 경험이다. 학생의 관점에서 본 실습경험에 대한 연구는 효과적인 실습 지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간호 실습경험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고 질적인 실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Q 방법을 적용하여 노인전문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마친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경험을 확인하며, 이 진술을 토대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노인 간호 실습경험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혀 실습을 통해 노인 간호를 담당할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 학생들의 노인 간호 실습경험을 유형화 한다.
2. 실습경험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3.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습지도방안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표집방법

1) Q-표본의 구성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문헌고찰과 반구조적 면담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전문병원 실습을 마친 5명의 학생들과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53개의 진술문이 구성되었고 이 진술문에서 2명의 간호학 교수가 토론을 통해 35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진술문을 Q방법의 원리에 따라 진술문 카드(6×10cm)에 작성하고 Q 표본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2)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 전문병원 실습을 마친 일개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표출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개요와 함께 연구자 참여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2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 모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들은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구에 동의하였다. 참가자 전원에게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면담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 할 수 있고 연구자도 강요를 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면담은 학교 기숙사 휴게실과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3) Q-표본 분류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동의한 후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문지를 통해 작성하였다. 각각의 설문지는 번호가 주어져 대상자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노인 실습경험 문항이 적힌 진술문 35개를 이용하여 Q 표본 분포 틀에 강제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9점)부터 '매우 그렇다'(9점)까지 9점 척도로 분류하고, 각 해당점수별 별도의 개수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

렇다'는 각각 2 문항씩 골라야 하며 나머지는 대칭적이고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 배열에 카드를 나열하는 강제성을 띤다. 수정을 거쳐 분류를 마치면 각각의 번호를 자료수집용 기록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분류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류를 마친 후 참가자는 자신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가장 동의하는 문항 2가지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 2가지에 대해 연구자와 심층 면담을 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Q 표본 분포도에 기록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을 1점으로 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을 9점으로 점수화 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이 자료는 PC 용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Q 유형의 형성

본 연구에 참가한 간호대학생 전원이 일개 대학 4학년 학생으로 2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간호학과 진학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입학 후 3-4학년 기간 중에 노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 대학생들의 노인 대상 실습 경험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유형은 각각 간호술 습득 중심형, 대인관계 형성 중심형 및 체계적 실습지도 중심형이며 전체 변량은 47.70%의 설명력을 갖는다. 각 유형별 변량은 제 1 유형이 29.72%, 제 2 유형이 11.97%, 제 3 유형이 6.01%를 나타내었다<Table 1>.

<Table 1> Eigen values and variances

	Type I	Type II	Type III
Chosen eigen values	7.7260	3.1134	1.5639
Percentages of total variance	.2972	.1197	.0601
Cumulative	.2972	.4169	.4770

<Table 2> Weigh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

Type	Subject's #	Factor weight score	Religion	Experience of living with elders	Having chronic family members
Type 1 (n=11)	1	1.8736	buddhist	yes	yes
	12	.9042	none	none	none
	22	.8718	buddhist	yes	none
	2	.8603	protestant	yes	none
	5	.8093	protestant	yes	none
	21	.7669	none	yes	none
	14	.7176	none	yes	none
	23	.5483	none	yes	none
	26	.5354	buddhist	yes	none
	19	.3811	none	yes	yes
Type 2 (n=10)	25	.2971	buddhist	yes	yes
	4	1.3096	buddhist	yes	none
	16	.6346	none	yes	none
	3	.6146	buddhist	yes	yes
	7	.6114	none	none	none
	15	.5161	catholic	none	none
	8	.4708	protestant	yes	yes
	20	.3930	none	yes	yes
	17	.3810	none	none	yes
	10	.3897	none	none	yes
Type 3 (n=5)	6	.2707	buddhist	yes	none
	11	.9464	protestant	none	yes
	18	.8432	protestant	none	none
	13	.5615	protestant	yes	yes
	24	.5598	catholic	none	none
	9	.2752	none	none	none

<Table 2>는 유형별 가중치와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 병원 실습을 통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것과 실습을 통해 노인의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실습내용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노인병원의 특성상 응급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으며 따라서 응급 상황에 대처 하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실습 현장의 지도자와 관련하여 이들이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였다<Table 3>.

2. 노인 간호 실습경험의 유형별 분석

1) 제 1 유형: 간호술 습득 중심형

총 26명의 연구 참가자 중 11명이 제 1 유형에 속하며 이들은 노인 병원 실습을 통해 간호 기술을 실제로 시행해 보기를 원하였다<Table 4>. 즉, 노인병원이 아닌 다른 임상실습지에서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간호술, 즉 비경구 투약, 회음부 간호 등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노인 임상 실습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제 1 유형 참가자

들은 대부분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거나 같이 살며 앞으로 노인병원에 취업할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제 1 유형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 및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을 대표하는 1번 참가자는 23세의 학생으로 노인 병원 실습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가장 강조한 것이 “수업시간에 듣기만 할 때는 치매 노인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나가서 직접 보고, 간호술도 직접 해 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는 것이다. 또한 노인 간호에 대한 이론 강의가 실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도 하였다. 12번 참가자는 노인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간호술을 설명도 해주시고 직접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는 등 노인 간호에 필요한 간호술 습득을 노인 간호 실습의 초점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노인 간호 실습을 수행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간호기술의 습득에 더 많은 노력을 보였고 노인 간호 실습이 학생들의 이러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모든 노인들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병원과 같은 응급상황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노인병동에서는 응급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아 응급기술

<Table 3>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Id#	Q statements	Z score
8	I was glad that the elders welcomed me and I became intimate with them.	1.34
4	The practice gave me a general understanding of elders' diseases.	1.08
34	I think that evaluation process is quite fair.	-1.00
13	The preceptors seeme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ents' individual needs and concerns.	1.22
25	I have gained an ability to handle an emergency.	-1.46

<Table 4>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1

Id#	Q statements	Z score
4	The practice gave me a general understanding of elders' diseases.	1.53
24	The elder care teams were kind and respectful to the elders.	1.28
12	I think the nurses were good teachers to the students	1.16
14	The preceptors welcomed the students' questions.	1.11
31	Gerontological nursing is a discipline that requires the most specific guidance for practice.	1.09
8	I was glad that the elders welcomed me and I became intimate with them.	1.08
27	I regret that I did not have enough time for my practice.	1.00
13	The preceptors seeme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ents' individual needs and concerns.	-1.01
22	I have been disappointed in the doctors for their insen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1.13
21	I don't think that there is much promise to a nurse that takes care of the elderly.	-1.14
32	I am clear about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the practice.	-1.19
35	I think the assignments and preparation for conferences are quite burdensome.	-1.66
25	I have gained an ability to handle an emergency.	-1.82
33	I think that the evaluator (head nurse, faculty advisor) evaluated my practice based on a good knowledge of me.	-1.83

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는 것을 아쉬워하며, 만약 응급상황이 일어나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학생 자신은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을 다른 병동 실습에서 익혀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제 1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노인 간호 실습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서 경험하며 노인 간호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노인에게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적절히 대처할 간호술 습득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2) 제 2 유형: 대인관계 형성 중심형

본 연구의 참여자 중 10명이 이 그룹에 속하였으며, 이중 5명이 가족 구성원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6명이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었다<Table 5>. 이들은 노인 간호학 실습에서 노인들뿐 아니라 다른 의료요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습경험을 인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노인환자들이 자신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자신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10명 중 6명이 노인병원이 ‘단조롭고 가라앉는 느낌’ 때문에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제 2 유형을 대표하는 4번 참가자는 노인들과 대화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노인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을 느끼게 되었고 노인에 대한 견해가 실습을 통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즉 실습 전에는 자신의 조부모님의 모습 즉, 정정하시고, 완고하고 보수적인 것이 노인이라고 느꼈었는데, 노인병원 실습을 통해 노인들이 ‘참으로 여리고, 눈물도 많고, 자식에 대

한 사랑이 깊으며 강한 모습이 아닌 약한 모습’을 지닌 것을 알게 되었음을 밝혔다. 16번 참가자는 노인의 심리적인 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노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노인을) 단순히 간호의 대상자로만 생각했는데, 실습을 하면서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였으며 노인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내일 또 오라고 격려하는 것이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노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것과는 달리 타 의료인 및 보호자들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번 참가자는 ‘보호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고 왔는지도 모르게 다녀갔어요. (보호자들이)와도 우리가 들어가면 병원하고는 달리 피하거나 별로 접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였다. 또한, ‘보호자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만 오시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다’며 보호자들과의 관계형성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16번 참가자는 의사는 병동에 와도 잠시 회진만 돌고 가버렸고 왔는지도 모르게 다녀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대학 학생들은 한 병동에서도 각각 맡은 영역이 달라 학생들 간의 교류를 맺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제 2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실습기관에서 간호 대상자와 보호자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종들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인식하고 습득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인과 간병인과의 관계만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타 의료인과의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았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2

Id#	Q statements	Z score
2	My attitude to the elderly has changed after the practice.	1.89
3	I have com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s after I met them.	1.84
8	I was glad that the elders welcomed me and I became intimate with them.	1.49
17	Compared to my work at a hospital, there was a less shift of works.	1.48
10	I just repeated simple and functional works at the practice.	1.31
26	I think the time for the nursing practice for the elderly was enough.	1.20
25	I have gained an ability to handle an emergency.	-1.04
33	I think that the evaluator (head nurse, faculty advisor) evaluated my practice based on a good knowledge of me.	-1.30
16	I am satisfied with working with the students from other schools, including sharing information.	-1.32
13	The preceptors seeme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ents' individual needs and concerns.	-1.44
7	I got along with the family members of the elders.	-1.67
15	I have gotten along well with the doctors.	-2.30

3) 제 3 유형: 체계적 실습지도 중심형

마지막으로 제 3 유형은 5명이 속하며, 이 중 4명이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없었다<Table 6>.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의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제 3 유형을 대표하는 11번 참가자는 평가자가 대부분 수간호사로 알고 있으나 수간호사와 실습시간에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와도 교류가 적었음을 밝히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내려 판단을 하는지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내가 실습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평가자가 어떻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나하는 의문이 생긴다”라며 체계적인 지도의 부재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18번 참가자도 “실습의 평가가 과정 중심이 아니라 리포트를 통한 결과 중심인 것 같아요. 실습은 대강 대강하고 리포트만 잘 쓰면 점수를 잘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으니까요”라며 적절한 평가의 부재에 대해 역설하였다. 특히 식사보조, 환의 교환 이외에도 체위변경과 회음간호 등의 직접적인 간호가 간호사 보다 간병인에 의해 많이 제공되는 것을 밝히며 따라서 학생들도 간호사보다는 간병인과 더 많이 접하며 같이 일을 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보호자가 거의 방문을 하지 않고 직원이나 실습 학생을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노인 간호가 대부분 평가자가 아닌 간병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습을 나온 학생들도 노인들과 ‘알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실습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11번 참가자는 “내가 실습한 층은 수간호사 선생님이 없고, 학생한테 관심이 별로 없고, 단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실습학생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라고 실습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제 3 유형에 속한 학생들도 실습 평가 이외에 노인 실습을 통해 노인들의 무기력함과 일부 요양원 직원들이 노인을 경시하는 태도, 보호자들의 무관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인 경시 문화를 체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간호 실습을 통해 노인 및 노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11 참가자는 “우리사회는 사람의 기능만을 중시하고 그 기능이 끝난 노인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라며 사람을 기능이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노인이라서 더욱 존경받고 우대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인 실습 경험을 자신과 연관지어 “나도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인데 노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해요”라고 하였다. 참가자 9번도 “집에 조부모가 안 계셔서 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고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도 잘 와 닿지 않았는데, 직접 실습을 해보니까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과 자녀에게 소외되었다는 느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노인 간호 실습의 경험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제 3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실습에 임하면서 체계적인 실습 지도를 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실습이 어떤 근거로 평가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우선적으로 두었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노인 간호 측면으로는 노인을 간호대상자로 인식하고 그들도 자신들과 같은 존재이며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지닌 인간으로 평가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3

Id#	Q statements	Z score
3	I have com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s after I met them.	1.84
2	My attitude to the elderly has changed after the practice.	1.89
8	I was glad that the elders welcomed me and I became intimate with them.	1.49
6	The family members of the elderly residents are passive in care.	1.37
18	The family members of the elderly and I exchanged help with each other.	1.32
9	I had opportunities to practice my nursing skill.	1.17
4	The practice gave me a general understanding of elders' diseases.	1.11
11	I think that the practice provided me with diverse experiences.	-1.13
34	I think that evaluation process is quite fair.	-1.18
13	The preceptors seeme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ents' individual needs and concerns.	-1.21
12	I think the nurses were good teachers to the students.	-1.43
25	I have gained an ability to handle an emergency..	-1.54
33	I think that the evaluator (head nurse, faculty advisor) evaluated my practice based on a good knowledge of me.	-2.48

을 가져온 계기로 느끼게 되었다.

IV. 논 의

간호학생들의 실습경험은 Q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기본간호학 실습경험(Han, Park, & Cho, 2000), 정신간호학 실습경험(Suh, 2001) 및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유형(Kim, Kim, & Nam, 2001)에 대한 연구이다. 기본간호학 실습유형은 수동적 요구형, 적극적 자신감형, 실제적 적용형으로 나타났고(Han, Park, & Cho, 2000), 정신간호학 실습경험은 수동적 요구형, 발전 지향형, 인간 존중형, 그리고 긍정 수용형 등 4가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형, 적극적 참여형, 능력한계 체감형 등 3가지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학생들의 실습 경험은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고된 내용 이외에 실습의 체계성 및 평가와 관련하여 3가지 유형으로 노인 임상실습 경험을 피력하였다. 유형별 논의는 아래와 같다.

1. 제 1 유형: 간호술 습득 중심형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인병원 실습을 통해 노인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간호기술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실습의 중요한 의미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간호 실습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간호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간호기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기회를 최대한 갖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간호실습 경험(Han, Park, & Cho, 2000), 정신간호 실습 경험(Suh, 2001)등에서는 대두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성인 간호 실습 시 학생의 간호 활동 시간 중 56.7%를 직접간호 제공에 소요하였으나(Lee et al., 2001) 활력징후 측정 등 기본적인 간호에 치중한 것과 달리 노인 병원 실습이 다른 병원 실습보다 다양한 간호술을 직접 해보는 기회가 많이 제공된 결과이거나 또는, 대부분의 노인 간호 실습이 졸업반에서 이루어지므로 취업을 앞두고 간호술을 더 많이 습득하려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간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노인환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습환경이나 실습 프리셉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술 시행 시 노인의 인권 존중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자 및 실습 학생들의 인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제 2 유형: 대인관계 중심형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인 간호 실습을 통해 노인을 자신과 비슷한 사고와 감정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유형에 있는 학생들은 노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과 보상을 얻고 이를 긍정적인 실습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노인실습을 통해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노인에게 예의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Yoon과 Han(1999)의 결과와 일치하며, 정신과 실습을 통해 정신과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변화되고 이해하게 된 Shu(2001)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Yang et al., 2002; Yoon & Han, 1999). 그러나 본 주관성 연구 결과 실습 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습을 통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론적 차이로 인한 결과 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노인 병동이나 요양원과 같이 이환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습에서 긍정적인 학습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기타 보호자나 의사와의 관계형성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병원의 특성상 의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형성 유무가 실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이 유형의 학생들은 입소 노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에 만족을 얻고 실습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간호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실습의 어려움을 토로한 일반 병동의 선행 연구 결과(Jang, 1986; Lee & Je, 1998)를 고려할 때 임상 실습 시 대상자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제 3 유형: 체계적 실습지도 중심형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인 실습 시 실습지도자나 노인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의미를 두기는 하지만 실습지도자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제공하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가에 주된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실습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 나타난 실습평가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Lee & Je, 1998). 실습 평가자가 실습생을 가까이 관찰할 기회가 결여 되어 실습 과정의 평가보다 결과 위주의 평가가 시행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시정사항이었다. 이는 임상실습이 수동적 관찰이 주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Park & Lee, 2002)와 같은 맥락으로 이것이 임상실습만족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Ahn과 연구자들(Ahn et al., 2002)에 의해 제시된 임상 실습 프리셉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실습에서의 자신들의 성실함을 실습지도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실습지도자와의 정규적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실습체크리스트나 지침서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수행하였거나 습득한 간호기술이나 지식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거나 학생들에게 자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실습 분위기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경험(Han, Park, & Cho, 2000)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이는 저학년이 실습 불안이 크다는 Kleehammer, Hart와 Keck(1990)의 연구 결과에 의거할 때 본 학생들은 졸업반 학생들로 임상현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임상 실습의 목적은 인지적 측면(대상자 접촉 등)과 행동적 측면(실무경험 등)으로 크게 구성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의 노인 간호를 위한 임상 실습이 간호술 습득이나 인간관계 형성 등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며 과반수의 학생들이 간호술의 습득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을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포괄적인 시야를 갖는 경험이 결여됨이 드러났다. 따라서 노인 간호 실습 시 학생들이 간호기술 습득, 대인관계기술 함양 및 환경적 요인 관찰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임

상 실습 학생의 실습 효율을 높이고 실습지도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돕는 체계적인 실습 과정 지침과 평가기준 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간호사들의 노인 간호의 능력 함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간호 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노인 간호 실습을 실시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노인병원 실습을 마친 26명의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임상 실습 및 노인 간호 실습경험에 대한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35개의 문항으로 Q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노인 병원 실습에 대한 진술문을 읽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분포로 분류하였다. 이 분포를 PC용 Quanl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 간호 실습경험은 3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1유형은 간호술 습득 중심형으로 노인 간호 실습을 통해 노인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간호기술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였고, 제2유형은 대인관계 형성 중심형으로 간호 대상자인 노인과 이들의 보호자 및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종들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인식하고 습득해 나가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 3 유형은 체계적 실습지도 중심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학생들이 노인 실습 시 실습 지도자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러한 실습 과정 및 결과가 공정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하였다. 실습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노인 실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 반면, 응급상황 시 대처하는 능력은 함양하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실습지의 환경적 요소로부터는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된 대인관계관련 과목에서 노인, 보호자, 타 의료인, 실습조원 및 타 대학 실습생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이 다루어져야 한다.
2. 본 연구의 참가 학생들 중 대다수가 노인 간호 이론 수업을 받은 후 실습에 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에 따라 노인 이론 수업을 가능한 노인 간호 실습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겠다.

References

- Ahn, Y., Choi, S., Hur, H., Shin, Y., Park, S., Kim, D., Kim, K., & Kim, G. (2002). Development of a modified preceptorship model. *J Science Yonsei Edu*, 50, 135-153.
- Han, K. S., Park, E. H., & Cho, J. Y. (2000). An inquiry into subjectivity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ttitude. *J Korean Acad Nurs*, 30(3), 682-693.
- Hu, H., Lim, Y., & Kim, M. (1998). Nursing diagnosis for aged persons in gerontological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Adult Nurs*, 10(2), 322-336.
- Jang, S. (1986). Level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Soon Cheon Nurs Junior College*, 11, 211-228.
- Kim, H. (1992). Understanding of Q methodology for subjectivity research. *Seoul J Nurs*, 0(1), 1-11.
- Kim, M., Kim, H., & Nam, S. (2001). Perception types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education. *J Korean Acad Adult Nurs*, 13(2), 327-339.
- Kleehanmer, K., Hart, A. L., & Keck, J. (1990).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of anxiety producing situation in the clinical setting. *J Nurs Edu*, 29(4), 183-187.
- Lee, A., Kim, J., Joo, M., Jeong, A., Jang, E., Kim, J., Kang, J., & Lee, J. (2001). An analysis of nursing care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experience for improvement of clinical performance education. *J Kyung Bok College*, 5, 523-535.
- Lee, H., Kang, K., Kim, N., Park, E., Choi, K., & Park, J. S. (2005). The current feature of clinical nursing practicum in Korea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Korean Nurs*, 44(5), 52-67.
- Lee, S. & Je, M. (1998).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clinical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J Ghu Je College*, 0(1), 211-230.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5). *Long term care, June 2005*.
- Park, K. E. & Lee, S. E. (2002).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ull Dongnam Health College*, 20(2), 83-96.
- Stephenson, W. (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Psychol Rec*, 3, 238-248.
- Suk, J. (2002). On strengthening th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 long-term frail elderly. *Health Welfare Forum*, 4, 48-68.
- Suh, M. S. (2001).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Q-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0(4), 686-698.
- Yang, K., Oh, H., Kim, J., & Bak, Y. (2002).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Medical J Chosun Univer*, 27(1), 146-156.
- Yoon, H. & Han, M. (1999). Effect of clinical experiences at a nursing home on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Korean J Gerontol Nurs*, 1(2), 255-262.

- Abstract -

Subjectivity of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Geriatric Hospital Practices

Shin, Dong Soo·Suh, Sum Rim**·Lee, Eun Joo****

Purpose: This study elicited Korean students' experiences of nursing practice at geriatric

* Full-tim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hospitals. **Method:** A purposive sample of 26 Korean nursing students was recruited from K College of Nursing located in Daegu, Korea. Inclusion criteria were nursing students who: 1) finished nursing practice at geriatric hospitals, 2) were oriented and communicable, and 3) understood research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Individuals were interviewed using Q-methodology. **Result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and volunteering related to elder care. Data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experiences of nursing practices

were consisted of three types: skill acquiring-oriented, relationship-oriented, and practice system-oriented. **Conclusion:** Nursing practices at geriatric hospitals provided opportunities of having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or nursing students.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ere divided into at least three different types. Nursing educators need to develop curriculum for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tailoring to these differences.

Key words : Q-methodology, Elder care,
Clinical practice